

■ '사이버 청정학교' 선정된 전대사대부고

홈피 클리너 활동... 정보통신 윤리 수업...

“악플 발 못 붙이죠”

사이버 명예시민 서약도

“우리 학교는 안전합니다.” 인터넷 악플(악성 댓글)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던 톱 탤런트 최진실씨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면서 건전한 사이버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 청정지역'을 선포한 학교가 있어 화제다.

전남대사대부고(전대사대부고)는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전국 초·중·고교 10개를 대상으로 선정한 '사이버 청정학교'에 광주·전남에서는 유일하게 포함됐다. 이들 학교는 방송통신심의위의 지원을 받아 사이버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전대사대부고 교육정보부장 최종철(40) 교사는 “의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품위를 잃지 않아야 학생들이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

했다”며 “교사·학생은 물론 학부모도 참여하는 정보통신 윤리교육 등 다양한 사이버문화 정착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학교 2학년들은 매월 마지막 주 학교 홈페이지 클리너 활동을 통해 학교 홈페이지에 실린 유해정보를 삭제하고 필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게 된다. 오는 11월에는 1, 2학년이 참여하는 사이버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인 ‘도전 골든벨대회’가 열리고, 정보통신 윤리를 홍보하는 내용의 UCC(사용자제작 콘텐츠) 발표대회도 예정되어 있다. 학생들은 사이버 명예시민 서약 운동에도 참여하게 된다.

1학년 구지인 양은 “인터넷 게시판에서 직접 댓글을 쓰진 않았지만 읽어보면 눈살이 찌푸러질 정도의 심한 악플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최진실씨의 경우처럼 악플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컴퓨터 교육을 받는 재량활동 뿐 아니라 정규 과목에서도 사이버 문화 정착에 관련된 내용을 배운다. 1학년들은 음악시간에 건전한 사이버문화를 주제로 하는 캠페인송을 만들어 발표대회를 갖는다. 눈살 시간에는 정보통신 윤리를 주제로 한 글쓰기를 연습한 뒤 눈살 및 토론대회를 갖고, 미술시간을 이용해 포스터 그리기에 도전한다.

1학년 김원택 군은 “의명성에 기대 근거 없이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라며 “앞으로 악플을 다는 친구들이 있다면 학교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악플의 심각성을 얘기해 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 교사는 “건전한 사이버문화 확산의 적극적 형태인 ‘선플’ 달기 운동도 함께 추진해볼 계획”이라며 “인터넷의 기능과 영향력이 커질수록 정보통신 윤리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방송통신심의위가 선정한 '사이버 청정학교'로 지정된 전대사대부고 학생들이 5일 교정에서 교육정보부장 최종철(가운데) 교사와 사이버 문화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다음달 7일은 '선플의 날'

탤런트 최진실씨의 죽음을 계기로 인터넷 악성댓글(악플)의 위험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일면서 상대를 비난하는 '악플' 대신 칭찬과 격려의 댓글을 달자는 '선플달기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사단법인 선플달기국민운동본부(대표 민병철 중앙대 교수)는 다음달 7일을 '선플의 날'로 선언하고 이달 중순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전국

적인 선플달기 행사를 펼쳐나간다고 5일 밝혔다.

이 단체는 '선플의 날'에 국회 '선플정치모임' 회원으로 활동 중인 여야 의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선플의 날 선언식'을 가지며, 전체 의원들에게 참여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국민 여배우’ 하늘의 무대로 떠나다

눈물바다 속 최진실씨 영결식

20년간 최정상급 배우였지만 굴곡 많은 삶을 산 최진실(40)씨가 유족, 동료, 대중의 가슴에 깊은 슬픔을 아로새겨놓은 채 이 세상에서 영원히 떠나갔다. (관련기사 17면) 최씨의 영결식은 지난 4일 오전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열린 영결식에는 유족, 교인, 소속사 관계자 등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애도했다.

이영자는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너는 몸은 여리지만 내가 기대면 늘 받아주고 어깨를 내어주는 강인한 친구였는데, 너를 보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네가 가장 듣기 좋아하고 하기 좋아했던 말이 ‘아이 러브 유’였지. 아이 러브 유”라며 슬픔을 토해냈다.

영결식 후 고인의 시신은 동생 최진영이 든 영정을 앞세우고 장례식장 밖 운구차량으로 이동했다. 윤다훈, 이광기, 고주원, 박혜진, 조연우 등 동료 연예인들이 운구를 맡았다.

이영자, 홍진경, 엄정화, 정선화, 이소라, 최화정, 신애 등 고인과生前에 두터운 친분을 유지했던 이들은 “친구야, 언니야 가지마”라며 정신을 잃을 정도로 오열했다.

시신은 경기도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로 운구돼 오전 9시30분부터 화장 절차가 진행됐다. 최씨의 유해는 “죽으면 남몰래가 아닌 산에 뿌려달라”는 평소 고인의 바람대로 오후 1시에 장지인 경기도 양평군 양수리 갑산공원 마르데산 묘역에 봉안됐다.

/연합뉴스



지난 4일 오전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2일 자살로 생을 마감한 톱탤런트 최진실씨의 영결식이 유가족과 지인들의 오열속에 열렸다. /연합뉴스

나원침 (7619) 김중두



“모방 자살 ‘베르테르 효과’ 통계로 입증됐다”

임두성 의원 자료 분석

유명인이 자살한 이후 자살율이 높아지고 모방자살이 잇따르는 이른바 ‘베르테르 효과’가 국내에서 실제 나타나고 있다는 실증적 통계가 제시됐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5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월별 성별 자살자 수(2003~2007)’를 분석한 결과, 유명인이 자살한 직후 자살율과 모방자살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고 정몽헌 현대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난 2003년 8월 남성 자살자 수는 855명으로, 이는 전달인 7월 737명보다 118명, 9월 777명보다 78명이 각각 많았다.

또 영화배우 고 이은주씨가 자살한 2005년 2월 이후에는 여성자살자 수가 급증했다. 당시 2월 여성자살자 수는 240명이었으나, 이씨가 자살한 직후인 3월에는 여성자살자 수가 462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고 임 의원은 밝혔다.

다빈씨의 자살 직후에도 나타나 2007년 1월 여성자살자 수는 289명이었으나, 이들이 자살한 이후인 2월 한달간 여성자살자 수는 534명으로 두배 가량 급증했다.

최근 톱탤런트 고 안재환씨가 자살한 이후에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운영중인 ‘보건복지콜센터 129’에 접수된 자살상담자 수는 지난 8월 220명에서 안씨 자살 직후인 9월에 439명으로 급증했으며, 이는 월별 평균 상담건수의 두배라는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연휴기간 모방 자살 잇따라

톱탤런트 최진실씨 자살 이후 이를 모방한 것으로 보이는 자살이 잇따랐다. 특히 보건복지가족부는 최진실씨의 죽음 이후 전국적으로 ‘베르테르 효과’의 의심되는 자살이 10여건 발생하자 ‘자살예방 상담전화’ 개설을 검토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4일 오후 1시20분께 순천시 조례동 한 모텔 객실에서 투숙객 S(28)씨가 천장에 압박봉대를 목을 매 숨겨 있는 것을 종업원이 발견, 119에 신고했다. 경찰들은 평소 수전만원의 체무를 지고 있던 S씨가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미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최진실 사채 괴담’ 경찰, 역추적 박차

경찰은 최근 악플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악질적·상습적 ‘악플러’를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집중단속에 착수키로 했다.

경찰청은 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한달간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댓글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한편 고 최진실씨의 ‘사채 괴담’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서초경찰서는 5일 중원사 직원들에게 문제의 괴소문을 전달한 제3의 인물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괴담의 역추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죽어봐라” 라이터 존 30대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5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자살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자살을 돕는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A씨는 이런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A씨는 작년 9월 25일 새벽 여자친구의 옛 남자친구 B(26)씨가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찾아와 “죽어봐라”고 말하자 “죽을 테면 죽어봐라”라며 라이터를 던져줘 B씨를 분신해 숨지게 한 혐의(자살방조)로 기소.

○1심 재판부는 “A씨가 라이터를 건네 줄 당시 B씨가 분신자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에 자살방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실제 불을 붙인 것도 총동적으로 일어난 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인정.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푸른산테크빌' (Purinsan Tech Villa) featuring a large image of the building and text describing its features and services.

Advertisement for '일중한의원' (Iljunghan Hospital) listing various medical services, staff members, and contact information.